

## 세계 식탁이 한자리에, 아시아 4대 식품전 '서울푸드 2026' 개막

- 역대 최대 1,800개社 전시, 6.5억불 규모 수출 상담 진행
- AI, 로봇부터 지역 기부까지... 식품산업의 미래와 동행이 한자리에
- 정부는 수출 1조불 달성을 위해 K-푸드 등 소비재 밀착 지원

국내외 식품 트렌드와 기술 등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는 아시아 대표 식품 박람회이자 국내 대표 식품 전시회인 '202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이하 '서울푸드 2026')'이 전 세계 바이어와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6월 9일(화)~12일(금)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서울푸드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 시작해 올해 44회차를 맞는 '서울푸드 2026' 행사는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 박람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6' 행사에는 288개 해외기업을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인 49개국, 1,800개 식품기업이 참여\*한다. 사전 집계한 수출 상담 규모도 전년에 비해 약 160% 증가한 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참가기업(개) : ('90) 207 → ('00) 400 → ('10) 1,095 → ('25) 1,639 → ('26) 1,800

이번 행사에는 전시회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먼저, '제10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 & 테크 컨퍼런스'가 열린다. "AI와 로봇이 만드는 푸드 컨버전스 시대"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먹거리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10회 서울푸드 어워즈'를 통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체육, 기호식품, 푸드테크 등 20개 생산 우수 기업을 시상하고, 별도 홍보관을 구성해 우수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의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러브 푸드(LOVE FOOD) 기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 미국은 독립 250주년을 맞아 2026년 개최되는 해외 식품 전시회 중 유일하게 '서울푸드 2026' 행사에 주민국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총 82개 부스로 꾸며지는 미국관에서는 육류와 최신 유행 스낵, 견과류부터 친환경 스페셜티 원료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K-푸드 방한구매단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카타르, 칠레, 라오스 등 신시장 10개 전략국가\*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김치, 장류, 전통주 등 전략품목을 소개하고 업무협약 및 계약 체결 등 신규 판로를 개척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전략국 :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인도, 카타르, 튀르키예 등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K-푸드 수출이 최근 중동 전쟁 등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랄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K-푸드 시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권역별 전략품목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K-컬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K-푸드와 같은 소비재 수출의 골든타임"이라며, "K-푸드 등 소비재가 K-컬처의 순풍을 맞아 수출 1조불 시대를 견인할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선봉장이 되어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김하경 (044-201-2169)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열규 (044-203-4030)
		담당자	사무관	정연신 (044-203-4032)